



후낭혼탁 레이저 치료 정보지

후낭혼탁이란 무엇인가요?

백내장 수술 후 일부 사람들에게는 새 렌즈 뒤에 흐린 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를 "후낭혼탁"이라고 합니다. 위험하지는 않지만, 백내장 수술 전처럼 시야를 다시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.

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?

레이저는 렌즈 뒤의 흐린 층을 제거하는 빠르고 통증이 없는 절차입니다. 이를 통해 빛이 올바르게 통과되고 시야가 더 선명해집니다.

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?

백내장 수술 후 시야가 다시 흐려질 경우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안과 의사가 이러한 흐린 시야의 원인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.

절차 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?

- 절차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클리닉에서 진행됩니다. 몇 분이 소요됩니다.
- 눈에 점안액을 사용하여 동공을 확장시킵니다.
- 밝은 빛을 보거나 부드러운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
- 절차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.
- 절차 후 바로 집에 갈 수 있으며, 시야가 몇 시간 동안 흐릿할 수 있습니다.

예후는 어떻게 되나요?

- 대부분의 사람들은 1~2일 내로 시야가 더 선명해졌음을 느낍니다.



- 며칠 동안 비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-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날 정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

위험과 부작용

- 경미한 눈의 불편감 또는 자극
- 비문증
- 단기적인 안압 상승
- 매우 드문 경우: 눈의 부기, 망막 박리, 렌즈 임플란트 손상

안과 의사에게 연락해야 할 때

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클리닉에 연락하세요:

- 악화되는 눈의 통증
- 비문증이나 번쩍이는 빛의 급격한 증가
-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

자주 묻는 질문

- 질문: 레이저 치료는 아픈가요?
- 답변: 아니요,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. 밝은 빛을 보거나 약한 압력을 느낄 수 있지만, 절차는 빠르고 편안합니다.
- 질문: 흐린 층이 다시 생길 수 있나요?
- 답변: 레이저로 흐린 층을 제거하면 보통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의 치료만 필요합니다.



이 문서는 Dr. Steve Arshinoff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.